

책을 펴내며

미국에 갔다 왔다고 하니 남들은 공부 많이 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사실 지난 1년간 공부는 별로 하지 않았다. 으레히 미국에 가면 영어공부라도 하는 줄 알지만 나는 그마저도 많은 정성을 쏟지 않았다. 그저 함께 간 딸아이 학교에 보내고, 밥해 먹이는 일 외에 딱히 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손에 잡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도 집에는 달이면 달마다 손님들이 찾아와 지내다 갔다. 한국에서 뉴욕까지 날아와 특별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지인들이 뉴욕구경 온 김에 지내다 가기도 했다. 그렇게 손님이 찾아온 시간과 이번 연수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터뷰나 자료 수집을 제외하면 언제나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집안에 혼자 앉아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다. 말하자면 참 맘 편하게 내 맘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편하게 보낸 1년도 내게 여러 가르침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이번 1년은 내게 전에 느끼지 못했던 다른 긴장을 가져다주었다. 특별

히 미국 사회에 인입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곳과 다른 사회에서 1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긴장이었다. 아마 다른 언어에 익숙지 않고, 다른 생활방식에 익숙지 않은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덕분에 이주민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외로움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한인사회를 많이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처지가 모두 같지는 않지만 그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미국을 보면서 한국을 배운 셈이었다.

미국이란 사회를 규율하는 여러 제도나 시스템도 직접 생활하면서 볼 수 있었다는 것도 내게는 좋은 기회였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같은 제도나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시대적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정말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내게는 큰 소득이었다.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모든 분과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한 박원순 변호사, 스탠퍼드 대학의 신기욱 교수, 재정적 후원을 해준 포스코 청암재단에게 감사드린다. 1년 내 남편과 자식을 이국땅에 보내놓고 모자라는 생활비며, 집안생계를 꾸려온 아내 홍정혜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 편하게 지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감사할 뿐이다.

그저 몇 쪽지 미국 생활 소회에 그치고 말 수도 있었던 글들이 이렇게 책으로 묶여 나오게 된 데에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의 다그침이 결정적이었다. 원고 보내라고 툭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오는 통

에 알뜰기도 했지만 그 덕에 책을 낼 만큼의 원고가 쌓인 셈이다. 거기에 이형진 사장의 제안과 격려가 없었다면 책으로 엮어 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 책의 출생은 그분들 덕분이다.

1년 동안 집안 살림에 익숙지 않은 아빠와 지내면서 불편했을 텐데도 불만없이 함께 해주며 간혹 사진도 찍어 준 정진이, 뉴욕에 놀러 와서 찍은 사진을 책에 싣도록 허락해 준 유정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처음 미국에 와서 모든 것이 익숙지 않을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신 뉴욕 아름다운재단의 강영주 이사님, 서지영 간사님, 길벗교회의 이승문 목사님, 콜롬비아 대학의 후배 김선철, 지금은 샌디에이고 대학에 가 있는 문지명과 박운주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린다.

아, 이제 휴식은 끝났나 보다. 또다시 찾아올 다른 휴식의 기회를 위해 일자리로 돌아가보자.

2008년 1월 성북동에서